

주무기 ‘너클커브’ 폭포수처럼 뚝

새 외국인선수 스카우팅리포트 2 LG 투수 루카스 하렐

볼 끝이 지지분한 직구로 땅볼 유도
슬라이더+커브 섞인 ‘슬러브’ 구사
변화구 제구 아쉬움…볼넷 수 줄여야
너무 빠른 체인지업 구속 감소 과제

LG 투수 루카스 하렐(30)이 8일 대전 한화전에서 시범경기 첫 등판했다. 헨리 소사(33)와 더불어 원투펀치 역할을 할 루카스의 등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루카스는 이날 4이닝 2안타 2볼넷 5삼진 2실점(1자책점)으로 비교적 호투했다. 처음 접하는 KBO리그 스트라이크존에 고전했지만 구위나 구종의 위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제구력에 대한 지적이 있다. 볼 비율을 줄여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지분한 직구…주무기는 커브

루카스는 싱커볼러다. 직구 구속이 시속 151km까지 나왔지만 구위보다는 지지분한 볼 끝으로 땅볼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플라이볼보다 땅볼 유도 비율이 높아 위기관리능력도 수준

급이다. LG 강상수 투수코치는 “미국에서는 시속 145km 후반대 공으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없다”며 “투심패스트볼 위주로 땅볼유도를 했던 선수다. 생각보다 구속이 빨리 올라와 한국에서는 삼진수가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 싱킹패스트볼성 직구와 컷패스트볼로 맞춰 잡는 피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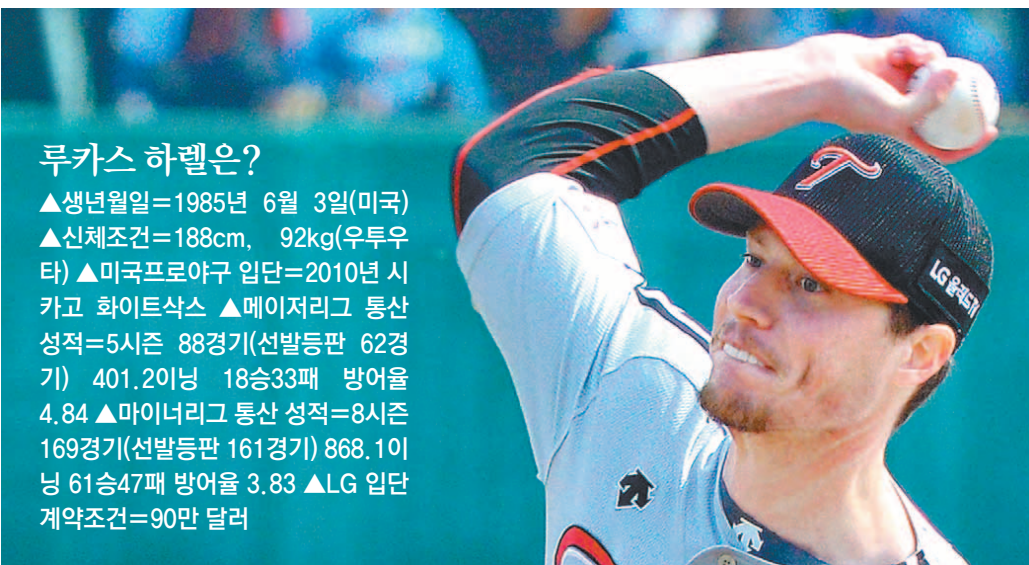
너클커브도 매력적이다. 정민철 MBC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은 “너클커브가 거의 폭포수처럼 뚝 떨어진다.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격적인 타자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삼성 윤성환 등의 이닝이더들은 대개 커브를 장착하고 있다. 루카스 스스로도 선발투수로서 커브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코치는 슬라이더의 날카로운 각과 커브의 낙차가 섞인 슬러브(슬라이더보다 좀더 낙차가 있는 투구이면서, 커브보다 구속이 빠른 구종)도 루카스의 무기로 꼽았다. 강 코치는 “파워커브는 우리나라 투수들 중에 구사하는 선수가 많지 않다. 루카스는 커브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슬라이드스텝은 1.18~1.36초로 매우 빠르다. 주

자가 쉽게 뛰기 힘들 수 있다.

●제구력이 관건…볼 줄여야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루카스의 문제점은 제구력이다. 정 위원은 “타점이 높고 팔각도도 좋지만 변화구 제구력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볼 비율도 높다. 홈플레이트 도달하기 전 공 변화가 있어 선구안이 좋은 타자들이 잡아내기 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루카스는 일본 연습경기부터 볼넷 개수가 많았다. 연습경기 2경기에 등판해 7이닝 동안 총 5개의 볼넷을 내줬다.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도 1회 연속 볼넷을 내주며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강 코치도 “제구력은 보완해야 할 숙제다. 제구가 안 되는 날은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시속 3~4km 줄여서 스트라이크로 던진 공이 맞아나갈 때가 있다”며 “전체적인 투구 메카닉이 좋지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체인지업도 구속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현재 체인지업이 140km대까지 나온다. 타자들의 직구 타이밍 타격에 맞아나갈 수 있다. 강 코치도 “너무 빠르다. 현재 체인지업 구속에서 시속 3~4km 정도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LG의 새 외국인투수 루카스 하렐은 헨리 소사와 함께 팀의 원투펀치로 기대를 모은다. 공의 무브먼트가 좋은 싱커볼러로, 땅볼유도 비율이 높아 타자를 맞춰 잡는다. 그러나 제구력에 대한 지적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스

●LG 루카스 하렐 스카우팅리포트 (8일 대전 한화전)

구분	시범경기 평가	시즌 예상	평가
직구	포심 151km	153km	공끝이 좋고 구종 자체 퀄리티가 높음
	무브먼트 A	A	원래 싱커볼 투수 공 자체가 지지분함
변화구	슬러브 135km	136km	슬러브의 회귀성 주무기 활용 가능
	너클커브 127km	127km	종으로 너클너플 떨어지는 위력적인 공
	커터 143km	145km	직구 그림에서 나오는 땅볼유도 구종
	체인지업 134km	129km	자칫 직구타이밍에 맞을 수 있는 위험한 공
	제구력 B	B+	제구력이 제1과제
기타	경기운영 A	A	다월질 성격에도 빼어난 위기관리능력
	메카닉 B+	A	밸런스, 팔 동작 Good! 조금 수정은 필요
	슬라이드스텝 1.18~1.36초	A	건재 능력 탁월

FA 존 레스터 잡은 컵스 ‘염소의 저주’ 풀까?

2015 ML 전력분석

3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에게 미소를 지을까. 목표는 단 하나. 월드시리즈 우승의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메이저리그 30개 팀들이 스프링트레이닝 캠프에서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메이저리그 2015시즌 개막을 앞둔 각 리그의 디비전별로 전력 분석 및 우승 가능성을 전망한다.

st.루이스, 선발진 신구조화…우승 1순위 피츠버그, 강정호 등 중심타선 무계감 굿 밀워키, 페달타·린드 중심으로 우승도전 신시내티, 차프만이 이끄는 불펜진 강점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

▲최근 리그 우승 : 2013년
▲최근 월드시리즈 우승 : 2011년
▲2014시즌 성적 : 90승72패(다비전 우승)
▲2015시즌 도박사 예상 우승 확률 : 13대1



포스트시즌에서 2년 연속 LA 다저스의 달미를 잡는 등 최근 4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했다. 유망주 오스카르 타베라스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지만 애들랜다 브레이브스에서 영입한 제이슨 헤이워드가 우익수로 나서게 된다. 애덤 웨인라이트를 위시해 랜스 린, 존 래키, 마이클 와카,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로 이어지는 신구 조화를 이룬 선발진이 강점이다. 파이어볼러 트레버 로젠달과 조던 왓슨으로 이어지는 불펜진도 철벽이다. 부상으로 110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한 아디에르 볼리나가 오프시즌 동안 20파운드를 감량하며 리그 최고의 포수 자리 탈환을 노리고 있다. 투수력에 비해 타력은 크게 떨어진다. 지난 시즌 팀 홈런 105개로 내셔널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시카고 컵스

▲최근 리그 우승 : 1945년
▲최근 월드시리즈 우승 : 1908년
▲2014시즌 성적 : 73승89패(다비전 5위)
▲2015시즌 도박사 예상 우승 확률 : 14대1



마침내 ‘염소의 저주’를 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최고 의 지장으로 꼽히는 존 매든 감독을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FA(자유계약선수) 최고의 좌완 존 레스터를 잡으며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우완 투수 제이크 아리에타가 레스터와 원투 펀치를 이루게 된다. 아리에타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서 40인 로스터 외 초청선수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피츠버그의 유격수 기프트 은고예베(위)가 9일(한국시간) 열린 토론토와 시범경기에서 타자 주자의 슬라이딩을 피해 날아오는 뒤 1루로 송구하며 더블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 더네이션(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는 지난해 9월17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1안타 완봉승을 거두는 등 10승5패(방어율 2.53)로 시즌을 마쳤다. 공수 모두 능한 미겔 몬테로로 가세로 포수 자리도 안정감을 찾았다. 지난해 32개의 홈런을 터뜨린 앤서니 리조는 리그 MVP에 도전할 만큼 기량이 급성장했다. 눈여겨봐야 할 선수로는 주전 3루수 자리를 노리고 있는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꼽을 수 있다.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더블A와 트리플A에서 138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7, 43홈런을 뽑아냈다. 유망주 조련사도 명성이 자자한 매든 감독의 매직이 발휘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최근 리그 우승 : 1979년
▲최근 월드시리즈 우승 : 1979년
▲2014시즌 성적 : 88승74패(다비전 2위)
▲1015시즌 도박사 예상 우승 확률 : 25대1



지난해 2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올해는 KBO 야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강정호의 가세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MVP 후보 앤드루 매커친과 1루로 전향한 페드로 알바레스, 2루수 닐 위커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다비전 라이

벌 팀에 비해 한 수 위라는 평가. 1년 만에 복귀한 AJ 버넷이 프란시스코 말리아노, 개릿 쿨, 제프 로크 등과 함께 막강 선발진을 이끌게 된 것도 플러스 요인이다. 제이슨 그랄리를 밀어내고 마무리 자리를 차지한 마크 멜란콘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동지를 옮긴 러셀 마틴의 공백을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와 크리스 스튜어트가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듯.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109개의 에러를 기록한 수비력을 개선해야 한다.

●밀워키 브루어스

▲최근 리그 우승 : 1982년
▲월드시리즈 우승 : 없음
▲2014시즌 성적 : 82승80패(다비전 3위)
▲2015시즌 도박사 예상 우승 확률 : 70대1



지난 시즌 149일 연속 다비전 1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막판 뒤통수 부족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월 페달타가 17승을 따내며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90마일대 중후반의 강속구와 싱커가 주무기인 페달타는 8승에 그친 에이스 맷 가자의 부진을 너끈히 메웠다. 1루수 애덤 린드는 타선의 파괴

감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린드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9홈런에 그쳤지만 2009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35홈런 114타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시내티 레즈

▲최근 리그 우승 : 1990년
▲최근 월드시리즈 우승 : 1990년
▲2014시즌 성적 : 76승86패(다비전 4위)
▲2015시즌 도박사 예상 우승 확률 : 70대1



지난해엔 슈퍼스타 조이 보토가 부상을 당해 62경기에 출전하며 5홈런에 그친 것이 치명타가 됐다. 토드 프레이저가 29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분전했지만 제이 브루스, 라이언 루드윅, 잭 코자트 등이 2할대 초반을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추신수를 대신해 리드오프 히터로 나선 빌리 해밀턴은 56개의 도루를 기록했지만 출루율이 0.290으로 낮았다. 100마일이 넘는 광속구 투수 아롤디스 차프만이 이끄는 불펜진은 강점이다. 에이스 조니 쿠에토는 20승9패(방어율 2.25), 탈삼진 242개로 놀라운 활약을 펼쳤지만 243.2이닝이나 던졌다. 15승을 따낸 알프레도 시몬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이적해 선발진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손건영 스포츠중계 미국 통신원



“승리보다 중요한 건 끈끈함”

이중운 감독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건 용납 못해”

이중운(사진) 감독 취임 뒤 롯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가고시마 전훈을 잡을 없이 마치는 과정에서 “이 감독의 팀 장악력이 생각 이상”이라는 주변의 호평이 나온다. 8일 사직에서 만난 이 감독은 “(시범경기) 해보니까 해볼만하더라”고 웃었다. 초보감독의 자아도취가 아니라 롯데 감독으로서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 감독은 “지금 롯데에는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

이 감독은 “실력이 떨어져서 야구를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끼리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올 시즌 롯데가 하위권으로 평가받는데 대해 “사실(우승 후보 소리를 들던) 지난해 전력과 별 차이 없다”고 말했다. 롯데가 그 정도로 저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선수들이 야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펼쳐진 탓에 지난해까지 있는 역량조차 발휘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접근한 이 감독은 롯데가 가진 힘을 결집하는데 취임 후 줄곧 공을 들여왔다. 선수들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조금 더 숙이도록 노력해보자”는 충고를 전한 속뜻도 ‘먼저 선수들이(코칭스태프, 구단 직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면 거리감이 훨씬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만났기 때문이다.

또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때에는 미 프로미식축구 슈퍼볼 관계로 숙소난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 감독은 “방 구하러 애쓰지 말라”고 구단에 전했다. 1인 1실이 아니라 2인 1실을 쓰도록 했다. 선수단에게는 “돈 몇 푼 아끼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때만이라도 선수들이 같은 방을 쓰면서 선후배의 고충도 듣고, 끈끈한 정이 쌓이기를 바란 것이다.

●롯데가 하나로 뭉친 순간

이 감독은 8일 사직 SK전을 승리해 롯데 감독 데뷔 첫 공식전 승리를 거뒀다. 1730일 만에 등판한 조정훈의 부활투는 이 감독에게 첫 승 이상의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호뭇함은 조정훈이 던질 때 보여준 롯데 벤치에서 발견됐다. 조정훈이 던질 때, 롯데 덕아웃은 하나가 돼 마운드의 투수가 던지는 1구 1구에 응원의 합성을 보냈다. 조정훈이 성공리에 등판을 마치고 귀환하면 하나가 같이 반기고 격려했다. 그 마음이 커진다면 롯데에 재생의 등불이 켜질 수 있을 것이고, 야구를 떠난 부산 팬들도 언젠가는 그 빛을 보고 롯데라는 등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